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준비 박차

시, 6개 분야 23개 중점사항 점검·당일 1800여명 배치... 9일 오전 8시 출발 1만2000여명 참가

군산시는 오는 9일 개최되는 2017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난날 24일 참가 신청을 마감했으며 4개 코스(Full, Half, 10km, 5km)에 참가하는 총 1만2000여명의 마라톤 건각들이 9일 오전 8시에 울릴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초부터 안전관리, 주로 정비, 시민참여, 교통통제, 순넙맛

이 준비, 가로환경정비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을 중점사항으로 정하고 2017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준비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회 당일에는 노선 주변에 있는 사업장의 공사 일제 중지 및 공사차량과 각종 농기계의 주로 진출입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지점 300개소에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경찰 등 1,800여명을 배치하여 주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을 정중하게 통제하기로 하는 한편 탄력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교통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의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언론 등에 교통통제에 대한 시민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네비게이션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체축제등록 추진으로 당일 교통 통제 알람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협조와 원활한 대회운영에 대비했다.

또한 4일 문동신 시장 주재로 진행된 마라톤대회 추진상황 현장보고회를 통해 시는 연초부터 준비해온 중점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을 진행하여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대회당일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필곤 기자



'별빛정원' 익산시 '착한가게 45호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종성 회장)와 익산시 모현동행정복지센터(박주환 동장)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별빛정원(대표 서호식)을 익산시 희망동행 '착한가게 45호점'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별빛정원은 모현동에 위치한 소바 돈가스 전문점으로, 평소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모현동 행복센터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착한가게 정

기부를 신청하게 되었다.

익산시 희망동행 착한가게 45호점으로 선정된 별빛정원은 모현동에서 15번째 착한가게다. 그간 모현동에서는 별빛정원을 비롯한 정기적인 후원자(CMS) 250명이 참여해 월 200만원의 후원금으로 우리주변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박주환 모현동장은 "착한가게로 기부를 해준 별빛정원에 감사드리며 후원금은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장애인 취업희망 전수조사

군산시는 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등록 장애인 1만7,552명을 대상으로 취업희망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취업희망 장애인의 인적사항, 경력, 교육훈련 및 취업 희망조건 등이고 시에서는 읍·면·동 장애인행정도우미를 활용하여 조사와 면담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필곤 기자

익산시, 출산장려금 첫째아이 50만원 지원

둘째 200·셋째 300·넷째 500·다섯째 1000만원... 쌍생아 200만원 추가

익산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존 둘째자녀 이상 출산시에 지급했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한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지급한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온 시는 이번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4일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가 익산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출산일 현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한 날부터 대상이 된다.

지원액은 첫째아 50만원(축하금 30만원, 축하용품 2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1,000만원으로 둘째아부터는 분할 지급되며 다테이는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은 300만원이 일

시금으로 추가 지원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변화 유도과 출산 친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실질적인 혜택을 높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산불방지 캠페인

익산시는 4일 유관기관과 함께 금마미루산 일원에서 산불방지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는 익산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주)전북에너지서비스, 익산IP가스협회,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IP가스협회 등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행락철을 맞아 내수면유·도선에 대한 유·도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익산시, 익산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했다.

특히 유도선 자체점검 관리실태 및 선박검사 후 개조여부, 공제보험가입 여부, 구명장비, 안전계시물 등 배치·비치기준 확인, 소화설비, 통신설비, 기관정비 상태, 선착장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했다.

이외에도 국민안전처에서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위촉하여 2017년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5월~12월)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정수원, 윤달 화장예약 특별 운영 6월 24일~7월 22일까지

익산시 공설화장시설 정수원은 올해 윤달을 맞아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29일간을 화장 특별운영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특별운영은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객편의를 위해 실시됐다.

일반적으로 개장유골 화장은 하루 2~3건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 운영 기간 중에는 하루 20여건 정도로 횟수를 증대 운영할 예정이다.

화장 예약기간 또한 현행 15일에서 30일전으로(1개월)로 연장 운영하고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해 개장유골 화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신청은 묘지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늘 예약시스템'을 통해 윤달 1개월 전인 5월 25일부터 예약하면 된다.

공설화장운영 관계자는 "특별운영기간 동안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품격 있는 장사문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공설화장시설 정수원은 유족대기실, 민원실, 휴게실 등 화장 진행에 따른 윈스톱 장사시설의 편의성은 물론 공설묘지, 봉안당, 자연장지를 운영하여 선진적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산단 '넥솔론'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4일 오전 국가산단단지 내 넥솔론(주)을 방문하여 기업에 대한 사정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행정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내 기업의 애로 사정을 청취하고 시 차원에서 협조할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넥솔론(주)이 우정 대표와 애로사항을 나누고,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넥솔론(주)이우정 대표는 "최근 태양광사업이 중국기업의 가격경쟁력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익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정현을 시장에 고마움을 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태양광 사업은 세계에너지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더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며 "시는 기업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넥솔론(주)은 500여명이 근무하는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2단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지난 3일 대학 산학협력관에서 경력직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식품품질관리 및 컴퓨터활용 여성특별과정 입학식을 실시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여성특별과정 입학식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지난 3일 대학 산학협력관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직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식품품질관리 및 컴퓨터활용 여성특별과정(경력단절여성과정)입학식을 실시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센터"를 대학 내 운영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익산캠퍼스에서 식품품질관리 및 컴퓨터활용에 관한 전문기술을 배우게 된다. 올해로 4기 훈련생을 맞이하는 경력

단절 여성훈련 과정은 수업료 및 교재, 식비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모든 비용이 국비로 지원되며, 또한 교육 이수 후에는 관련 분야로의 취업까지 앞선된다.

이날 여성훈련 과정은 수업료 및 교재, 식비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모든 비용이 국비로 지원되며, 또한 교육 이수 후에는 관련 분야로의 취업까지 앞선된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센터"를 대학 내 운영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익산캠퍼스에서 식품품질관리 및 컴퓨터활용에 관한 전문기술을 배우게 된다. 올해로 4기 훈련생을 맞이하는 경력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